



# 새와 꽃은 그림이 되고 산과 들은 삶이 되고...

나주 금천면 촌곡2구에 있는 죽설현(竹雪軒)은 한 고집 있는 화가와 자연이 만들어낸 호사스런 정원이다. 한국 최고의 정원인 담양 소쇄원이 그렇듯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고 심은 나무며, 화초가 이제는 사람의 커다란 손길을 마다하고 스스로를 꾸미면서 사계절 아름다움을 선물한다. 한 개인의 정원이라는 점에서 부러움이 앞서는 곳이기도 하다.

죽설현은 나주의 명물인 배밭 사이의 작은 길을 굽이굽이 따라 가다 보면 나오는 아늑한 능선에 자리하고 있다. 한겨울 '초록'을 유일하게 간직한 곳이기도 했다.

이곳 주인장이자 한국화가인 시원 박태후(60) 화백이 그가 키우는 진돗개 '진순이'와 마중 나왔다. 박 화백을 따라 메타세쿼이아 나무 등 수목이 우거진 작은 산책로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왼쪽에는 텀자나무가 오른쪽으로는 광광나무가 도열하고 있는 길을 지나자 박나무에서 연기를 내뿜고 있는 박 화백의 작은 벽돌집이 나왔다. 집 뒤편에서는 대나무가 한겨울 푸름을 자랑하고 있었다.

발걸음을 옮기자 성인 허리만큼 쌓아놓은 기왓장이 숲과 산책로의 경계를 이뤘다. 박 화백은 "여름이면 질경이가 카펫을 이루고, 기왓담 사이로 피어난 옥잠화가 진한 향을 내뿜는다"고 자랑했다. 산책로가 새싹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었고, 호랑가시나무와 대나무, 소나무 등은 여전히 푸른빛을 머금고 있었다. 작은 산책로를 빙 둘러 집 앞으로 내려오자 박 화백이 그렇게 자랑하는 작은 연못이 나타났다. 죽설현에는 6개의 연못이 있는데, 5월이면 노란꽃 창포가 연못을 장식하고, 왕버들이 긴 가지를 연못에 드리운다고 했다.

주인장이 집안으로 안내했다. 집을 둘러싼 통유리 너머에 있는 작은 연못에 봄을 재촉하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다. 그의 동갑내기 아내 김춘란씨가 정성스레 우려낸 뽕이차를 내왔다.

죽설현은 박 화백이 지난 40년간 손수 만든 정원이다. 그는 지난 30여년 전부터 이곳에 집을 짓고, 낮에는 햇볕 아래서 정원을 가꾸고, 밤에는 달빛을 빗살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런 박 화백이 최근 지난 40여 년간 몸으로 부딪혀 만든 정원에 대한 경험담과 절기에 따라 피고 지는 야생화 등의 이야기를 엮은 책 '죽설현 원림(園林)-화가 박태후의 정원 일기(일화당)'를 펴냈다.

원예고를 나온 그는 자연스럽게 나무를 가꾸는 일에 재미를 붙였다. 농촌지도소에서 일하면서 토끼가 자갈 섞인 황토 밭이었던 이곳에 각종 나무 종자를 채취해 파종하고, 삼목하고, 절절이면서 나무를 가졌다. 치런 허의득 선생을 사사한 그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그림을 그렸다.

42세가 되던 해에는 농촌지도소를 그만두고 본격적인 전업작가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매달 100만원이 넘는 연금이 나오기에 연탄과 쌀 걱정이 없다"며 아내를 설득했다. 죽설현이라는 당호는 대나무를 좋아해서 '죽'자를 넣었고, '설현'은 의재 허백련 선생의 춘설현과 치런 허의득 선생의 소설현에서 따왔다.

이후 조금씩 정원을 넓히고 연못도 만들었다. 그 넓이가 지금은 약 1만평에 이른다. 20여년 전부터는 전국을 돌면서 절이나 한옥에서 나오는 기와를 사모아 담장을 꾸미기 시작했다.

그는 "3년 전부터 책을 준비했는데, 글쟁이가 아닌 탓에 책을 쓴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며 "하지만 40여 년간 몸으로 직접 배우고 느낀 자연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고 싶어 펜을 들었다"고 말했다.

박 화백은 이어 "처음에는 인위적으로 나무를 무작정 심고 가꾸려고 했지만 최근에는 일 년에 몇 차례 키 높은 잡풀을 베는 것이

## 낮엔 일하고 밤엔 그림 그리며 활동

## 야생화·열매·대숲·연못 조성 등

## 만평 정원 가꾸며 자연 벗삼은 40년 기록

전부"라며 "어느새 허락없이 들어온 불개치꽃, 제비꽃, 민들레, 질경이, 양지꽃 등이 이제는 주인 행세를 하며 정원을 더 아름답게 꾸미고 있다"고 밝혔다.

정원을 자연 그대로 놔두니 더 큰 즐거움이 생겼다. 새들이 지저귀고, 귀뚜라미 우는 소리가 이제는 그의 벗이나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죽설현 원림"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실렸다. 그는 자신과 같이 자연을 벗삼아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우리나라 토종나무와 야생화들의 특징, 이를 제대로 가꾸는 방법을 알려준다. 책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죽설현에서의 삶을 다룬 네 개의 챕터로 구성했고 사진은 사진작가 리일현씨가 몇년간 찍었다.

박 화백은 "양산보가 소쇄원을 만들었을 때의 정신세계나 학문 세계에는 범접하기 힘들지만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설현에서 자연 그대로와 공존하는 한국식 정원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참나리꽃'이 아름다운 죽설현의 여름



봄의 전령 죽설현의 '자주괴불주머니'



박진현의 문화카레

매월 첫째 주 금요일 저녁, 뉴욕 맨하튼 5번가에 위치한 구겐하임 미술관은 밤 디탈 톨이 없다.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이어지는 '퍼스트 프라이데이 콘서트(first friday concert·금요콘서트)' 때문이다.

'Art After Dark'라는 주제로 열리는 금요콘서트는 구겐하임 미술관의 기관프로그램 중 하나. 지난 2005년 첫선을 보인 이 콘서트는 DJ, 록, 재즈, 와인, 그리고 그림이 함께 어우러져 '미술

은 이곳에서 '눈이 떠지는' 황홀한 체험을 한다. 이처럼 미국인들의 문화향유는 주로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미국 미술관 협회가 발표한 자료(2009년)에 따르면 미술관은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남버 3 여행지'다. 하루 평균 230만 명이 미술관으로 문화나들이를 떠난다. 올해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했다. 지난달

## '문화가 있는 수요일'

관=전시장'이라는 고정관념을 깨뜨렸다.

금요콘서트의 가장 큰 매력은 '열린 음악회'라는 점이다. 미술관 회원이나 뉴요커는 물론 기자와 같은 이방인도 25달러만 내면 '불금'(불타는 금요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시카고의 대표적인 미술관인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는 매년 여름 '특별한 캠프'를 연다.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엘더호스텔(Elderhostel)'이다. 참가비가 1인당 100만 원선이지만 제법 인기가 많다. 미술관 홈페이지에 안내문이 올라오기 무섭게 어르신들의 폭풍 클릭이 이어진다.

엘더호스텔의 주무대는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의 전시장. 숙소는 미술관 인근에 마련된 유스호스텔이다. 이들은 5박6일 동안 미술관에서 가정들의 작품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미술에 문외한이었던 노인들

29일 첫 시행된 '문화가 있는 날'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의 핵심사업. 모든 국민이 미술관·영화관 등 문화시설을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밤 8~10시까지 무료 또는 할인으로 개방하는 것이다.

지역에서도 광주시미술관, 민속박물관 등 16개 기관이 참여한다. 평소 퇴근이 늦어 문화생활과 담을 쌓아야 했던 바쁜 직장인들에게는 반가운 뉴스다. 하지만, '문화가 있는 날'이 정착하려면 시민들과 기업들의 참여가 필수다. 특히 매월 마지막 수요일은 직장인들이 야간근무나 회식에서 자유로워지도록 사회적 인식과 배려가 뒤따라야 한다. 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과 시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한들 즐기는 사람이 없으면 그림의 떡일 뿐이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수요일 저녁만큼은 가족들을 위해서 비워두자.

(편집국장·문화선임기자)

## 문화·여행·스포츠 관람 '문화누리카드'로 통합

문화소외계층에게 발급되던 문화·여행·스포츠관람 이용권이 '문화누리카드' 한 장으로 통합발급된다.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은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사업'에 24억 4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오는 24일부터 주민자치센터와 온라인(www.문화누리카드.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 주관 카드사업자가 변경됨에 따라 기존 문화카드 소지자도 모두 신규로 발급 받아야 한다. 문의 062-670-7912~7.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문화소외계층에게 발급되던 문화·여행·스포츠관람 이용권이 '문화누리카드' 한 장으로 통합발급된다.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은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사업'에 24억 4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오는 24일부터 주민자치센터와 온라인(www.문화누리카드.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 주관 카드사업자가 변경됨에 따라 기존 문화카드 소지자도 모두 신규로 발급 받아야 한다. 문의 062-670-7912~7.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www.kjhr.com

since 1982

창업 32주년 국제보청기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다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특이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시험회 **트라이슈머**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단열복합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1 시공전 / 단열베이스카펫시공 2 단열베이스카펫 / 트라이슈머시트시공 3 트라이슈머 필코팅 시공 4 옥상 시공 후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 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듯~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품디자인으로 바뀌주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이공법!!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Green(녹색)환경**을 추구합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